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 동국조선은 미대륙에 있었다”

[1]영문고지도로 본 COREA의 위치

1.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영토를 우리처럼 좁게 그것도 명확히 적은 나라는 없을것입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토가 어디인지 영문고지도들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선대의 국가 대조선(COREA의 정식국명)의 강역이어야 합니다. 대조선은 영토가 너무나 넓어서 동서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우리 선대의 동국조선은 동쪽의 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국조선의 위치를 바르게 알아야 현재의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수 있을 것이며 왜 좁디좁은 조선반도에 그것도 남북이 분단되어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선조들이 살던 땅이 어디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지도들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작이란? 1.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2.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3.지어서 만듦.

동국조선의 선대의 나라는 고려입니다. 우리 고려는 아래 지도처럼 한반도에 약소국이라고 배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강단사학자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실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아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도를 보기전 중요지명들을 몇개만 알아 보겠습니다.

(1)거란: CATAY(CATHAY), (2)서하:TANGUTE(TANGUT), (3)만주:MANGI(MANSI), (4)몽고: MONGOL

이러한 중요지명들의 위치를 알아야 고려와 동국조선의 위치를 바르게 알수 있겠습니다.



기마민족의 후예라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사학계의 주장처럼 이좁은 조선반도에서 살아왔는가?

2. 대다수의 영문고지도들은 국사학계의 주장과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

전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고지도들의 대다수는 현위치에 COREA가 있었다고 그려져 있습니다.



1594 Petrus Plancius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32264/Orbis_Terrarum_Typus_De_Integro_Multis_In_Locis_Emendatus_auctore_Petro_Plancius.html

1: Mongol(몽골), 2: Tanguth(서하), 3: Cathay(거란) 4: Corea(동국조선)



지도대로라면 동국조선이 조선반도에 있음은 주위의 다른 지명들로 증명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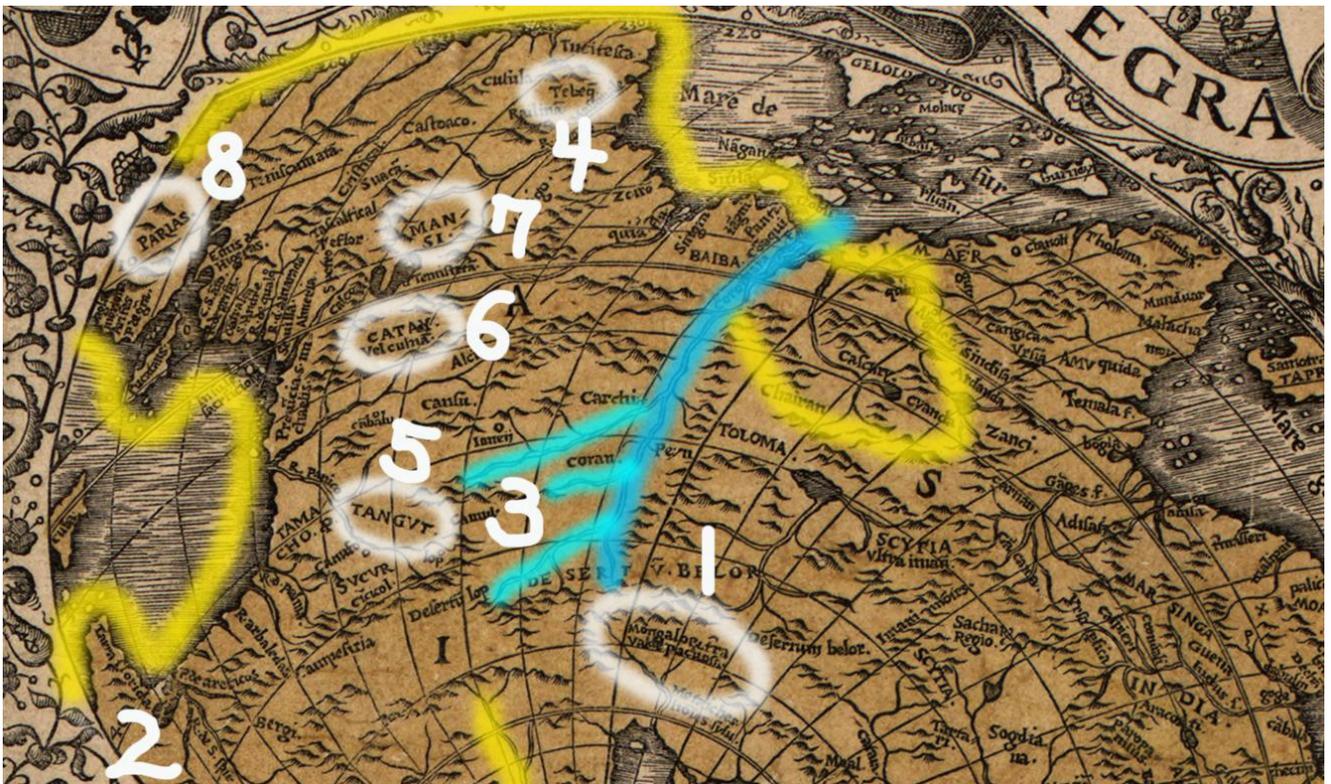
하지만 16세기초중반에 제작된 고지도들은 전혀 다른곳이라고 증거합니다. 그곳은 북미입니다.

3. COREA의 중국은 북미에 있었다.



1531 Orontius Fineus <http://www.loc.gov>

대부분의 고지도들은 북미를 아시아와 분리하여 그리지만 15,6세기 영문세계지도들은 아시아와 북미를 하나의 대륙으로 그렸으며 고지도들은 **“북미는 아시아고 동국조선의 중국은 북미에 있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지도가 어떠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번은 몽골(Mongol)입니다. 원래의 몽고는 현 **베링해협근처**였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동국조선의 역사를 조선반도로 조작하면서 지명을 이동시킨것입니다. 몽고와 북미사이에는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베링해협이 생겨서 대륙이 분리됐지만 1500년대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서쪽으로 몇만리가 DESERT(사막)**입니다. 몽골은 매우 중요한 지명으로 몽골의 위치에 따라 세계사는 이동되며 동국조선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몽골은 조선반도의 북서쪽 현재의 유라시아중앙부로 이동되었습니다.

2번은 플로리다를 그렸습니다. Tarra Florida라는 지명이 명확하게 표시되 있습니다. 1531년인데 북미의 지명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마이카, 유카탄, 메시고, 브라질, 그린란드, 쿠바등 현재에도 쓰여지는 지명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신대륙발견으로 시작되는 미대륙의 역사가 거짓소설임을 이 한장의 고지도로 알수 있겠습니다.

3번은 요수(遼水)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12년 10월 17일 양성지의 상언에 **“우리 나라는 요수(遼水)의 동쪽 장백산(長白山)의 남쪽에 있어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수만리(幾於萬里)나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몽골의 지명을 조작함으로써 요수는 현 몽골남쪽에서 찾아야 되었고 역사서들에 나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수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번지역에는 서남으로 흐르는 세계의 큰강이 있습니다. 세계의 큰강이 만나 남으로 흘렀고 하류쪽의 강폭이 수십키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 사학계에서 요수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것은 요수가 어떠한 이유에선지 베링해협에 의해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요수가 사라졌는지 추가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은 서하(탕구트, TANGUTE)입니다. 6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중국 북서부에서 활약하던 티베트계 유목 민족이 세운 국가인 서하가 북미에 있음은 동국조선의 **중국이 북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하의 위치는 알래스카 서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번은 거란(CATAY)입니다. **칭기즈 칸(?~1227) 시대** 이후 거란은 북중국이었으며 지구를 다스리던 대조선의 황제국 동국조선의 북중국이기도 했습니다.

6번은 만지(MANJI)입니다. 동국조선의 남중국이었으며 대조선의 마지막천자이신 고종황제께서 계셨던 서부의 MANCHU DYNASTY가 어떻게 지워지고 현재의 조선반도 위쪽의 만주리야로 지명이동되는지 보겠습니다. 비단같은 만주낙원 말을 달리던 우리선조들의 만주는 북미서부에 있었습니다.

7번은 태백산(太白山)입니다. 현 태백산은 원래의 태백산이 아닙니다. 우리민족은 세계여러곳에 나라를 이루어 살며 여러곳의 태백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국조선의 **태백산은 북미의 북서쪽에** 위치했으며 태백산, 장백산, 백두산 의 위치는 북미의 서부에서 록키산맥을 따라 알래스카까지 이어집니다.

8번은 해동성국(海東盛國) 발해(渤海)입니다. 고구려의 계승국가로서 698~926년의 220여 년 간 현 아시아 동북지역에서 북미까지 통치했던 대제국으로 북미에 신라를 압박하여 남미로 몰아버린 남북국시대의 대제국이었습니다. 16세기 지도상에 남미에 SILLA와 북미에 PARIAS는 다른 지명들로 미루어 남실라 북발해임을 알수 있습니다.

진실된 영문고지도들은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영미에게 빼앗겨 잃어버린 대조선의 천자국 동국조선의 찬란한 역사를 회복할수 있는 마지막 희망일 것입니다. 그럼 한부분씩 보겠습니다.

4. 북미에 COREA를 증거하는 16세기 고지도들

1507년 Waldseemüller, Martin 지도(<http://www.loc.gov>)를 보면 우측에 길게 내려온부분은 북미에 해당하며 남미는 왼쪽에 분리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사에서 신대륙발견이 있었다던 1492년에서 15년후에 남미부터 북미에 내륙까지 빼곡하게 지명들이 있으며 북미는 아시아와 하나로 연결된 아시아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명들을 보면 북미에 (4)서하, (5)북중국거란, (6)남중국만지로 동국조선의 남,북중국이 전부 북미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들에 중국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동국조선의 천자가 계시는 수도권역으로 이해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507년 Waldseemüller, Martin



1531 Orontius Fineus



1507년 지도와 1531년 지도는 1~6번까지의 중요지명들이 일치하며 1507년지도의 4~6번의 지역이 북미임은 1531년지도로 증명이 되며 1507년 지도는 세계지도이고 북미는 아시아였습니다.

1507년에 이미 뾰뾰하게 있는 남북미의 지명들을 보면 신대륙발견이 소설이며 현재의 세계사와 국사가 대부분 조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고지도들의 대다수는 동일하게 동국조선의 중국이 북미에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5. 16세기의 Orontius Finaeus지도

16세기초중기의 Orontius Finaeus지도들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남극대륙까지 하나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rontius가 제작한 수많은 지도들은 일관성있게 지구를 하나로 연결하여 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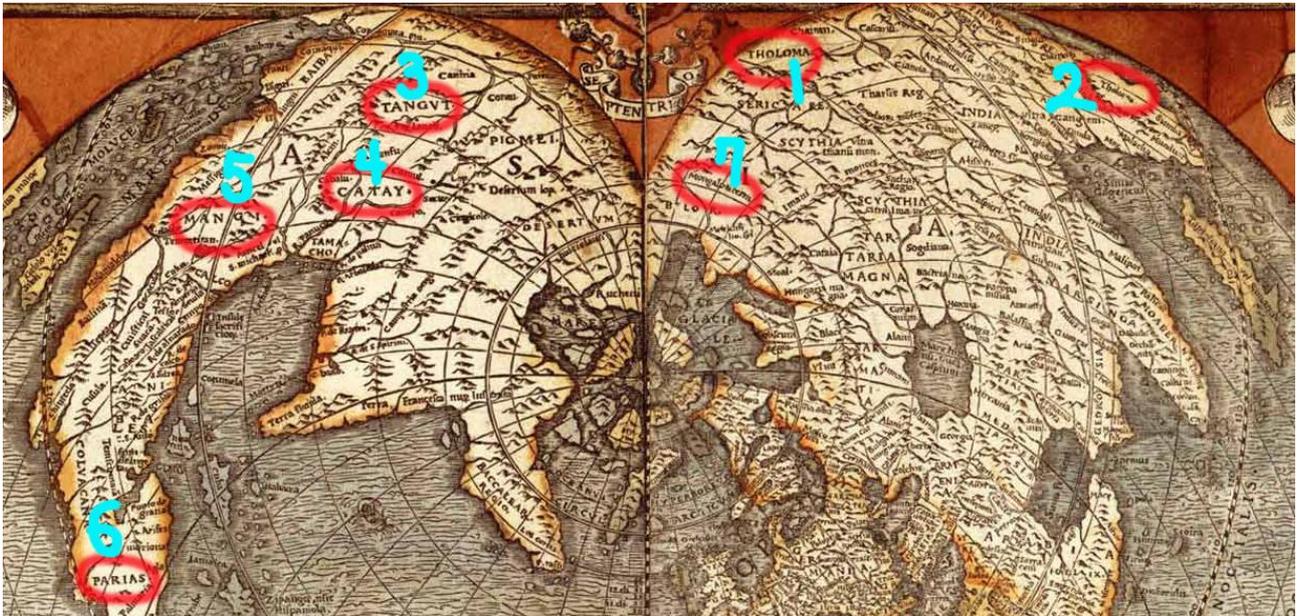
지도들을 보면 동시기 지도들중에서도 매우 정교하게 그려져서 마치 구글어스로 지구를 보는 듯이 실제에 가깝게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34 Orontius Fineus <http://mappingworld>

구글어스로 보는 지구를 지도처럼 잘라서 붙여 보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공위성이 없던 시절 지구의 형상을 이 정도로 구현한것을 보면 각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것은 지도제작자가 지구를 다스리던 대조선의 지리정보들을 활용할수 있었기에 이러한 상세한 지도들을 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534년 지도는 앞의 지도들과 동일한 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1번 동로마(THOLOMA), 2번 서로마(Tholoma), 3번 서하(TANGUT), 4번 북중국거란(CATAY), 5번 남중국 만지(MANJI), 6번 발해(PARIAS), 7번 몽골 외에도 다수의 중요지명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6세기 고지도들의 위경도는 근현대와 불일치하며 인공위성처럼 첨단지도제작기술들이 없었음을 감안하고 보면 Orontius Finaeus의 고지도들은 동시기 고지도들뿐 아니라 대다수의 17,18세기의 지도들과 비교해 보아도 정확하고 훌륭한 지도들임을 알 수 있으며 북극권에 그린란드와 허드슨만의 지형과 여러지명들 그리고 플로리다, 브라질, 쿠바, 자마йка등 현대의 지명들이 고스란히 표시된 16세기의 영문지도들을 보면 현재 지구인들이 교육받고 있는 세계사가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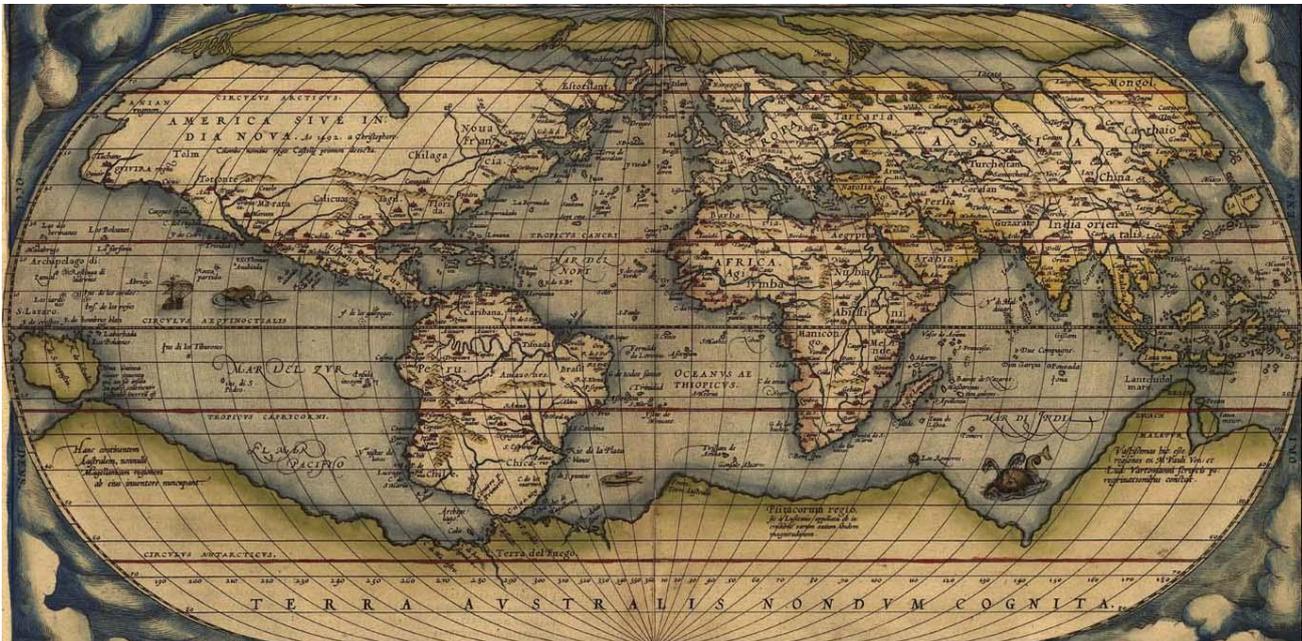
6. 16세기 영문세계지도는 두부류

우선 16세기 영문세계지도들은 미대륙을 아시아로 그렸느냐로 분류할수 있겠습니다.



1565 Forlani, Paolo <http://www.loc.gov> (위지도는 근래에 지명이 이동된 지도로 보임)

위의 지도를 보고 신대륙발견을 믿을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비슷한 조작들을 만든듯...



1570 Abraham Ortelius <http://www.loc.gov>

세계사에서 16세기 고지도의 기준이라고 평가받는 Ortelius 지도를 보면 북미와 아시아는 현재도 85km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인데 지도상으로는 수십배 멀게 그렸으며 북미에 있던 중요지명들은 대부분 이동되거나 지워졌습니다. Ortelius가 제작했다는 수백장의 지도들은 이러한 대륙의 분리와 지명의 이동이 이루어진 지도들로써 세계사조작을 위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조작지도들로 보입니다.

위의 두지도처럼 16세기 지도들은 미대륙과 아시아가 분리되었는가의 여부로 분류되었습니다.

7. 16세기 동국조선을 미대륙에 표시한 지도와 삭제한지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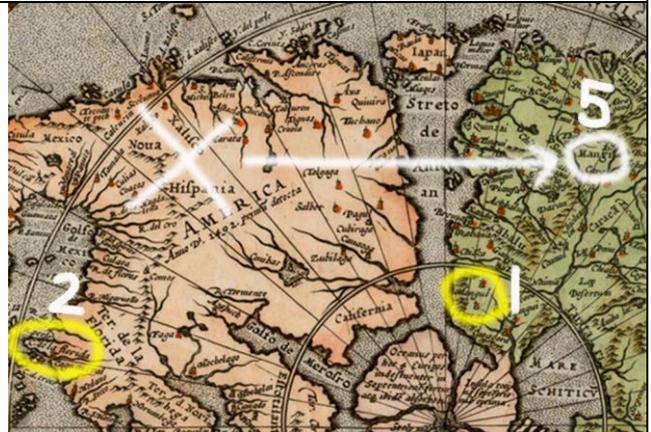
세계지도들중 동국조선이 미대륙에 있었음을 증거하는 지도들과 이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지도들로 북미에 지명들을 비교탐구하여 보겠습니다.

미대륙에 중국이 있다.



1531 Orontius Fineus

아시아에 중국이 있다.



1593 Cornelis De Jode <http://www.rare>

몽골(1) 플로리다(2)의 위치는 동일하고 (3)탕구트, (4)거란, (5)만주, (6)태백 등의 중요지명들을 북미에서 대부분 지우면서 일부만 아시아로 이동을 시킨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34 Orontius Fineus <http://mappingworl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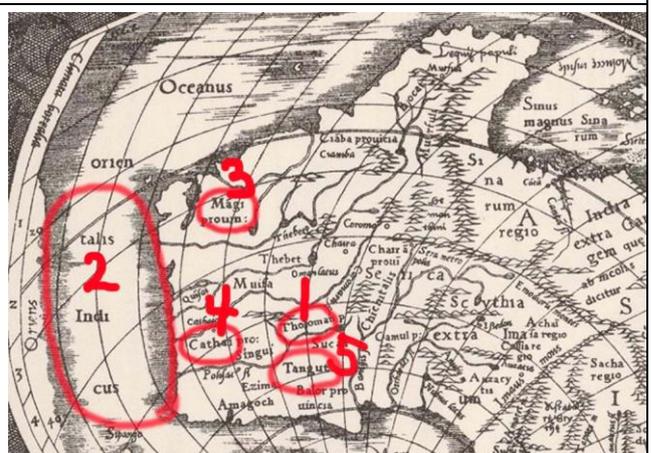


1571 Abraham Ortelius <http://www.raremaps>

몽골(1)의 위치는 동일하나 아시아였던 북미를 아메리카로 만들고 북미의 서하(3), 만주(4) 등 대부분의 중요지명을 지우고 거란(2)만 아시아로 이동시켰습니다.



1540 Orontius Fineus <http://www.raremaps>



1538 Gerardus Mercator <http://www.david>

16 세기의 저명한 지도제작자인 Mercator의 1538년지도는 몽고(1)의 위치는 동일하나 2번 북미와 아시아 사이를 지워 바다로 그리고 만주(3), 거란(4), 서하(5)을 북미에서 아시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1551 Orontius Fineus <http://www.nla.gov>



1578 Gerard De Jode <http://www.raremaps>

1578년 지도는 3 번의 육지를 지우고 바다로 만들어 아시아였던 북미를 분리시키고 중요지명들의 대부분을 아시아의 조선반도 근처로 이동시켰으며 16세기초중기 지도들에 아직 육지였던 Japan 열도(2)를 북태평양의 섬(Giapan)으로 그렸습니다. 16세기 지도 중에는 JAPAN 열도(Giapan, lapon,..)를 뜯금없이 북태평양에 표시하는 조작지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1566 Orontius Fineus <http://www.david>



1595 Hondius <https://www.rare->

1595년 Hondius 지도는 ASIA였던 북미를 AMERICA로 표시하고 몽고(1)와 캘리포니아(3)는 동일하며 북미에 있던 거란(2), 서하(4), 만주(5)중 거란만 아시아로 이동되고 나머지는 지워버렸습니다. 중요지명들의 정보는 지도제작자들에게는 상식일것인데 대부분의 지명을 지우고 대륙을 분리시켜버린 지도인데도 현세상에서 Jodocus Hondius 가 만들었다는 지도들은 공신력있는 지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의 지도들을 비교해보면 북미를 아시아로 그리고 세밀하게 지형과 지명을 표시한 지도들은 COREA를 미대륙에 표시한 반면 지도를 엉터리로 그리며 화려한 지도들은 북미를 아시아와 분리하며 아메리카로 그리고 COREA의 지명들을 대한민국의 있는 조선반도 근처로 이동시킨 것을 알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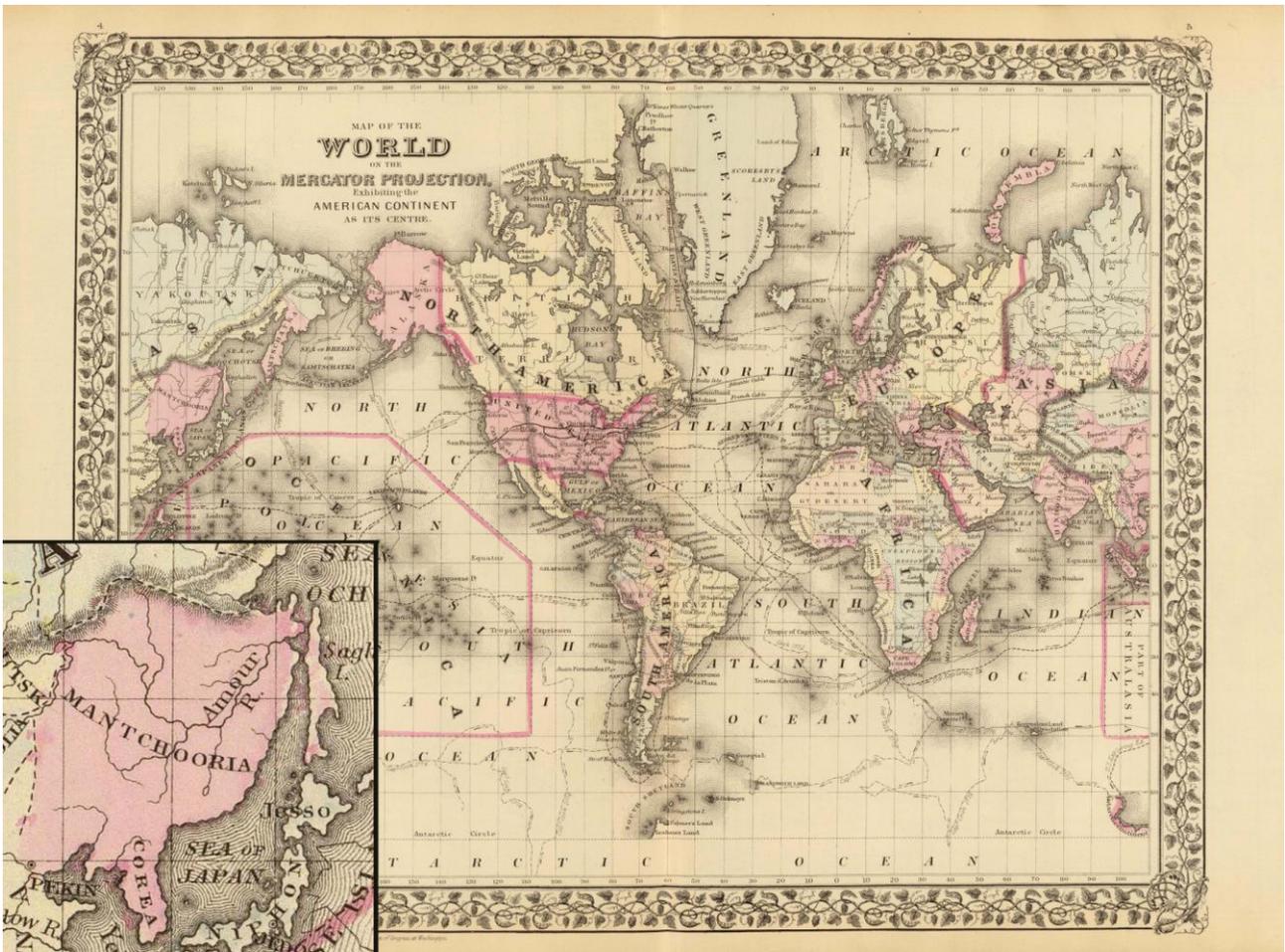
8.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고지도들을 조작한 이유는?

현세상의 지배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된 세계사를 감추고 거짓된 현재의 세계사를 만들면서 과거의 지리정보들을 담고 있는 고지도들을 수거하고 지명이동된 현재의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 조작들을 대량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16세기 중반이후 대부분의 지도들이 이전의 지도들과 불일치 하며 현재의 지리정보와 일치하는 것이겠습니까.

16세기초중기의 지도들 중에 이후의 지도들과 내용이 전혀다른 지도들이 많은 이유는?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16세기 이전의 고지도들은 그 하나하나가 가문의 가보요 지역의 자랑일 정도로 귀하기에 찾으면 숨기고 비싸게 산다면 더 감추는게 유물을 보관하는 사람들 인지라 수거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십배 많은 조작들을 만들어 유포한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조작들을 권력의 시녀처럼 관련학계에서 훌륭하고 믿을수 있다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이전의 진본지도들은 믿을수 없고 이상하다고 폄하하여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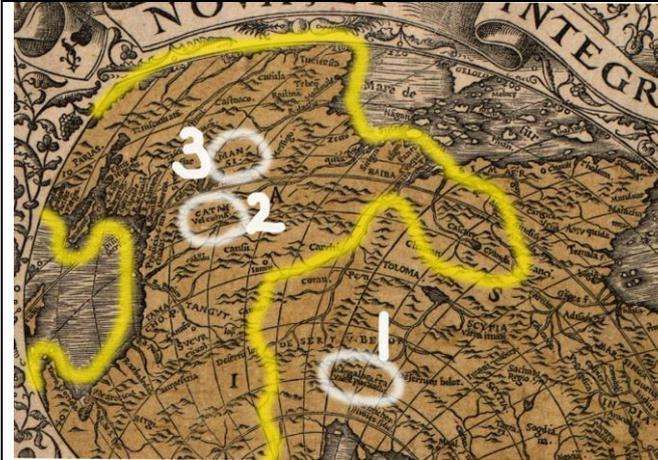
1884 Mitchell, Samuel Augustus

COREA는 무엇이며 영토는 얼마나 컸는가?

동방의 등불 COREA는 태조대왕 이성계가 고려말 동방을 통일한 후 역성혁명을 통해 건국한 조선으로 COREA는 조선왕조500년의 실록을 보유한 동국조선이며 영토가 적은 시기인 고종황제시절에도 지구의 절반이상이 COREA의 영토였습니다.

9. 대조선의 천자국 COREA는 지워졌다.

북미의 지명들을 조선반도 근처로 위치시킴으로써 지구를 다스리던 COREA는 조선반도의 약소국이 된 것이며 원래의 한반도는 미대륙이었고 우리 COREA들은 조선반도에 만들어진 COREA인수용소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531년 Orontius Fineus <http://www.loc.gov>



1846 Quin, Edward <http://www.loc.gov>

배달민족 동국조선의 자손들이 한국인들은 원통해서 땅을치고 분노에 치가 떨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새빨간 조작입니다. 이 지도들이 우리가 아는 역사가 사기요 조작임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고지도들이 다른 이유는 고지도조작사업이 원인일 것이며 이것은 태조고황제(이성계)께서 건국하신 대조선이 지구의 대부분을 다스리던 대제국이었고 COREA가 미대륙과 전세계를 다스리던 대조선의 천자국이었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동방의 등불이었음을 모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시다.

영미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고지도조작사업을 벌인 이유는 세계사를 조작하여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COREA의 유산을 감춤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영구히 지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고지도조작사업을 시행하고 거짓된 세계사로 지구인들을 세뇌한 것이며 그러한 사업을 통해 원래 하나의 나라였던 지구를 수백개로 분열시켜 사악한 자들이 지배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겠습시다.

이글을 보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청부해드린 고지도들을 소중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지도들은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하기 어렵습시다. 그것은 대부분의 고지도가 조작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극히 소수의 조작되지 않은 고지도들이 남아 있었습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역사회복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고지도들은 배달겨레의 역사를 찾을 중요한 지도들입니다. 분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개치 않으면 우리민족은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릅시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소중히 보시고 모든 국민들이 진실을 알도록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고지도파일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의 지도들을 알게된 후 오랜 시간 고민을 하였습니다. 살면서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일반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은 고지도들이 배달겨레에게 너무나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분들께서는 부디 부족한 글들의 흠을 보려만 마시고 위 지도들을 찾아서 진위를 파악하시고 연구하셔서 진실된 역사를 지구인들이 알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글들은 중요지명들의 이동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